

# 어린이와 청년(jeunesse)을 위한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정책

손 동 기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자문위원

본 브리핑은 프랑스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

## ■ 문화예술교육 고등위원회(HCEAC)

프랑스 정부는 2005년 학교에서 예술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고등위원회(Haut Conseil de l'E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 이하 HCEAC)’를 창설했다. HCEAC는 문화부(ministre de la Culture)와 스포츠·청소년·교육부(Ministre de l'E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장관들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고 있다.

### • HCEAC 구성

HCEAC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3년마다 재구성하고 있다. HCEAC 위원은 크게 3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부의 문화부, 교육부, 청소년체육부, 농업부, 국토부, 고등교육부, 연구혁신부, 연대보건부 등을 대표하는 11명의 위원,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10명의 위원 마지막으로 무모를 대표하는 2인을 포함한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 HCEAC 미션

HCEAC는 문화즐김과 문화접근에 대한 평등 측면에서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HCEAC는 프랑스 대통령이 희망하는 ‘100% 문화예술교육(100% l'E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장사항을 제시한다. 한편 가장 혁신적인 문화예술교육(l'E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다.

### • 문화예술교육 현장

프랑스 정부는 모든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담은 2016년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발표했다. 문화예술교육현장에는 10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현장에는 ‘문화예술교육은 모두에게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가와 만나고, 예술활동을 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창의성과 비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협회 등 문화예술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참여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 100% 문화예술교육 라벨

프랑스 정부는 문화예술교육을 정부의 우선 과제로 하기 위해 2021년 12월 ‘100% EAC’라벨을 출시했다. 이 라벨은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모두에게 100% 문화예술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을 목표로 2021년 12월에 만들어졌다.



그림 1. 100% 문화예술교육 라벨

(출처 : 프랑스 문화부 보도자료, 2022)

‘100% EAC’ 라벨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연합, 도시연합,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은 2022년 1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 받았다. 그 결과 보르도, 렌스, 칸느, 생디지에 지역 등에서 2022년 9월에 라벨을 수여 받았다. 이 라벨은 5년 동안 유효하다. 이들 지역들은 지역 내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문화예술교육을 강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100% EAC’ 라벨에서 ‘노래 부르기’, ‘독서’, ‘관람’, ‘자기 표현하기’, ‘비판적 사고’ 등을 중시하는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0년 프랑스 문화부와 스포츠·청소년·교육부는 ‘문화예술교육 국립 고등기구(Institut national supérieur de l'é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 이하 INSEAC)’를 설립했다. 이 기구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평가, 인증하고, 미리 전략을 위한 방향성 제시를 미션으로 하고 있다. 또한 INSEAC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 ■ 문화예술 ‘자각(éveil)’을 위한 정책

프랑스는 문화예술을 향유하는데 있어 어린시절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아동기는 예술과 문화에 대한 사회화와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때

문에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과 경험을 중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가족의 문화자본의 영향으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는 공공문화정책을 통해서 차이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프랑스 문화부는 2020년 빈곤 예방 및 퇴치를 위한 국가 전략의 하나로 유아 전문가 교육 계획을 시행했다.

2017년에 3월 1989년의 ‘문화·아동기 의정서(protocole Culture-Enfance de 1989)’에 이어 아동의 문화·예술 자각(éveil culturel et artistique)을 위한 새로운 부처간 의정서가 문화부와 여성권, 아동, 가족부(ministère des Familles, de l'Enfance et des Droits des femmes) 간 체결되었다. 이를 통해서 영·유아에 대한 문화·예술 각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아동 전문가 또는 예술가 등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는 유아를 돌보는 교사 및 전문가의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프랑수와즈 니센(Françoise Nyssen) 전 문화부 장관은 문화예술 자각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예술과 문화에 대한 접근은 특권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도록 사회 모든 참여자가 함께해야 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현대미술기금(FRAC)이나 문화예술지원에 유아 전문가를 포함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거나, 음악 및 공연 예술가가 보육시설(ECEC)의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 일상을 이해하는 등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화예술 자각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유아기와 음악(Enfance et Musique)의 설립자 인 마크 카이아르(Marc Caillard)씨는 문화부와 교육부 두 부처의 협력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서 유아정책에서 예술적·문화적 자각 요인을 개발하고, 한편으로 문화예술교

육정책에서 유아 요인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와 가족문제 전문가인 소피 마리노폴로(Sophie Marinopoulos)는 2019년 6월 ‘출생부터 3세까지 아동의 문화예술적 자각’에 관한 보고서를 프랑크 리스터(Franck Riester) 문화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그녀는 이 보고서에서 건강과 문화를 결합한 ‘문화건강(Santé Culturelle)’ 개념을 제시하면서 ‘문화건강을 위한 중재 키트(Kit de médiation sur la santé culturelle)’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서 부모와 전문가 사이에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포스터, 스티커 등을 통해 문화예술 자각에 대한 가족 간의 인식을 높이고자 했다. 포스터와 스티커에는 ‘내 건강은 문화적이다’, ‘문화 속에서 자라다’, ‘내가 예술을 사랑하게 해주요’ 등의 문구를 넣어서 아이의 문화건강을 위한 가족문화 개선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두 부처의 협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예산 일부를 도시 또는 농촌지역에 있는 ‘민감지역(quartiers sensibles)’ 어린이 및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문화사무국(Directions Régionales des Affaires Culturelles, 이하 DRAC)를 지원한다. DRAC는 탁아소와 같은 영유아 시설에 문화예술 ‘전문가

개입의 소임(Vocation d’Insertion Professionnelle)’을 갖게 된다. 물론 DRAC는 지역에 따라 자신들의 우선 순위가 있고, 이에 따른 세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프랑스는 예술과 문화를 통해 영·유아 및 청소년은 감수성, 내면의 자유, 개인적인 표현 및 세상과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고 있다. 한편 보육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문화유산, 예술적 창조 및 경험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재확인하며, 이는 정체성의 자유롭고 완전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이 전문가를 통해서 아이들의 일상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 ■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정책 시사점

2022년 11월 4일 제2차 아동문화예술교육 자각을 위한 전국회의를 문화부와 연대·자립·장애인부(ministère des Solidarités, de l’Autonomie et des Personnes handicapées)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전국회의에서는 영·유아 및 청소년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간과 시간을 새롭게 구획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프랑스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학교에만 맡기고 있지 않다. 아이가 태어나는 가족에서부터 자라는 지역사회까지 모든 곳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문화부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 간 협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민간단체까지 포함한 통합적 협력체계를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 관련 부처 간 정책 조율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 [프랑스 문화부 보도자료]

<https://www.culture.gouv.fr/Thematiques/Education-artistique-et-culturelle/Le-Haut-Conseil-de-l-Education-Artistique-et-Culturelle/Lancement-du-label-Objectif-100-EAC-et-creation-de-l-Institut-National-Superieur-de-l-Education-Artistique-et-Culturelle> (검색일 2022년 11월 22일)

<https://www.culture.gouv.fr/Thematiques/Education-artistique-et-culturelle/Le-Haut-Conseil-de-l-Education-Artistique-et-Culturelle> (검색일 2022년 11월 22일)

<https://www.culture.gouv.fr/Actualites/Un-ouvrage-pour-repenser-la-mediation-culturelle-pour-les-enfants> (검색일 2022년 11월 22일)

## [Culturelink 기사]

Culturelink(2021.10.20.), “La «Santé culturelle» des jeunes enfants, un kit de médiation à disposition des structures culturelles”, Available:  
<https://www.culturelink.fr/politiques-culturelles/la-sante-culturelle-des-jeunes-enfants-un-kit-de-mediation-disposition-des> (검색일 2022년 11월 22일)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기(2022). “어린이와 청년(jeunesse)을 위한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정책”.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아키스브리핑 제306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손동기 dongkison@hotmail.com  
ACKIS브리핑 작성 2022.12.27.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현장  
#문화매개(médiation culturelle)